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26년 4월 22일(수) 10:00부터 보도
배포일시	2026년 4월 22일(수) 08:00
배포부서	한국개발연구원 홍보팀 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담당자	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 (044-550-4397, ywlee@kdi.re.kr), 이승희 KDI 연구위원 (044-550-4063, shlee@kdi.re.kr), 마창석 KDI 연구위원 (044-550-4021, changseokma@kdi.re.kr)

KDI 중동 전쟁 대응 T/F 긴급 현안자료

- KDI는 최근 중동 전쟁 대응 T/F를 구성하여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,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.
-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,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한 주요 정책 이슈를 분석한 긴급 현안 자료를 배포함. 해당 자료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,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소비 동향 변화, 고유가에 따른 가계의 에너지 지출 부담 등 현안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음.
-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효과
 - 중동 전쟁 확전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모두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으며, 특히 최고가격제는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.8%p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.

○ 중동 전쟁 발발 이후 3월 소비 동향

-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속보성 지표를 바탕으로 3월 소비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,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비 둔화는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향후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총 이동자 수의 감소세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
○ 고유가에 따른 가계의 에너지 지출 부담

-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역진적 구조하에서, 기초생활 보장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수급가구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남. 고유가 장기화 시 여름철에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

❖ 첨 부. <KDI 중동 전쟁 대응 특별자료>

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효과

마창석 연구위원

1.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

■ 최근 국제 유가의 높은 상승세에 대응하여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바, 두 제도의 효과에 대해 분석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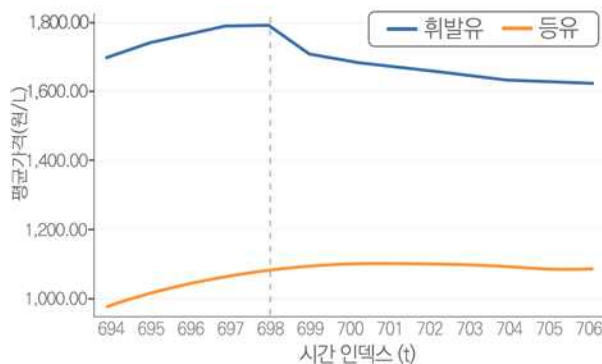
- 한국은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,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광범위하게 과급될 우려가 큼.
-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바, 이에 따른 가격 억제 효과를 살펴볼 필요

2. 정책 수단별 효과 분석 및 정책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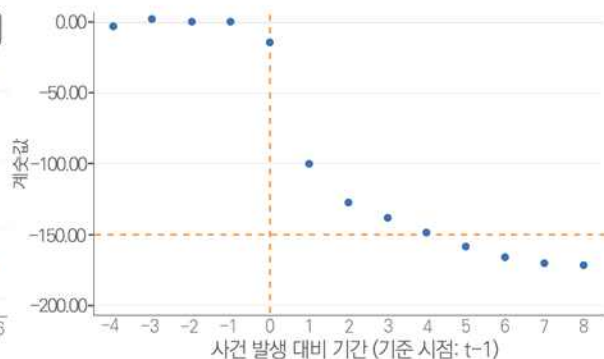
■ 유류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, 인하분의 대부분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보이며, 이는 휘발유 공급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구조적 특성에 기인함.

- 유류세가 동결된 등유를 대조군으로 활용하여, 2021년 11월 둘째 주에 시행된 휘발유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 판매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
 - 해당 시기는 빈번한 세율 변경 이전으로, 정책 효과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 분석대상으로 선정
- 유류세 인하 시행 직후부터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여, 최종적으로 인하분(149.5 원)과 유사한 폭만큼 주유소 판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1] 휘발유와 등유가격 추이



[그림 2] 유류세 효과 분석 결과



자료: 오피넷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.

- 이는 휘발유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비탄력적인 구조에서 기인한 결과임.
 - 휘발유 공급곡선은 정유사들의 국제시장으로의 수출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평에 가까우며,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세금 인하의 소비자물가 전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.
 - 현재는 수출 여건이 상이하나, 본 분석의 대상 시점에서는 해당 가정이 유효

최고가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,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가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음.

- 회귀식을 이용해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 가격을 추정하고, 실제 가격과의 차이를 정책 효과로 해석
 - 국제유가 반영 시차를 달리 설정한 복수의 모형을 추정
- 주유소 판매가격의 국제유가 반영 시차, 즉 과거 국제유가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 최고가격제 효과의 시기적 분포가 달라지며, 시차를 가정할수록 초기 효과는 작고 이후 점차 확대되는 양상
 - 다만, 현재까지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4주 동안의 총효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델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.
-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주인 3월 4주 차, 소비자가 누리는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 리터당 약 460원, 자동차용 경유 916원,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정

<표 1> 3월 4주 차 최고가격제 효과 추정

(단위: 원/리터)

구 분	휘발유	자동차용 경유	실내 등유
실제	1,819	1,816	1,509
가상	2,279	2,732	2,061
효과	-460	-916	-552

주: 효과는 모형별 추정치의 중wert 기준.
자료: 오피넷, 저자 계산.

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, 1차 최고가격제는 3월 소비자물가를 0.4~0.8%p 낮춘 것으로 분석됨.

- 휘발유·경유·등유 가격과 소비자물가 내 각 품목 지수가 유사하게 움직이는 점을 근거로 가격 1원 변화 시 지수 변화분을 산출하고, 이를 최고가격제의 가격 인하 효과에 적용한 뒤 각 품목의 가중치를 곱하여 소비자물가 기여도로 환산
- 최고가격제의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는,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0.8%p,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0.4%p로 나타남.
- 한편,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대략 0.2%p로 분석됨.

중동 전쟁 발발 이후 3월 소비 동향

이승희 연구위원

1. 중동 전쟁과 소비

■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유가 급등을 유발하였고, 이는 거시경제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

- 특히 우리 경제는 대외개방도가 높고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아 이러한 유가 충격이 기업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고 가계 실질 소득과 소비를 제약하여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

■ 이에 따라 시차가 존재하는 전통적 지표가 아닌 속보성 지표를 바탕으로 최근 소비 동향을 파악할 필요

- 전통적으로 거시경제적 충격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월별, 분기별 지표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이러한 지표는 수집과 발표의 시차로 인해 적시성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
 - 예를 들어 국가데이터처의 산업활동동향은 익월 말 발표되어 발표까지 한 달가량 시차가 존재
- 따라서 본고에서는 속보성이 확보된 국가데이터처 나우캐스트의 신용카드 이용금액(신한카드)과 모바일 인구이동(SKT)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소비 동향을 파악
 - 이와 같은 데이터는 대표성의 한계가 있으며 고빈도 자료의 특성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속보성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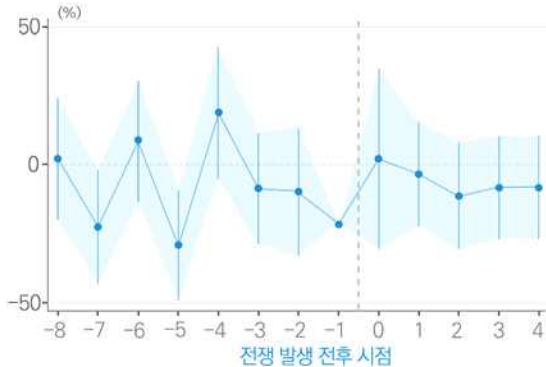
2. 속보성 지표로 살펴본 3월 소비 동향

■ 금년 1~3월 신용카드(신한카드) 이용금액을 과거(2023~25년) 동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, 전체 이용금액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(그림 1).

- 전쟁이 발발한 금년 1~3월과 과거 3개년(2023~25년) 1~3월을 비교하였으며, 모든 결과 값을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평균 간 차이를 기준으로 삼아 상대적인 변화량으로 도출
- 신용카드 이용금액 총액은 전쟁 이후에도 과거 수준 대비 감소하지 않고 보험세를 지속
 - 이용총액은 물가와 물량으로 분해할 수 있고, 물가 상승에 의해 이용총액이 증가하는 효과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비 감소로 판단하기는 어려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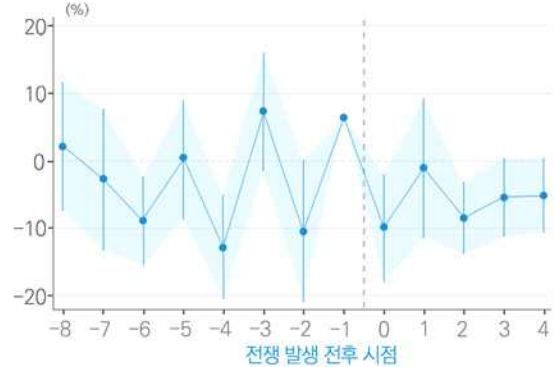
- 다만, 세부 항목별로 보았을 때, 음식 및 음료서비스업 이용금액은 전쟁 발발 이전에도 소폭 감소하였고 전쟁 발발 이후 미약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(그림 2)
 - 전쟁 발발 이후에도 낮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점차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1] 신용카드 이용금액 총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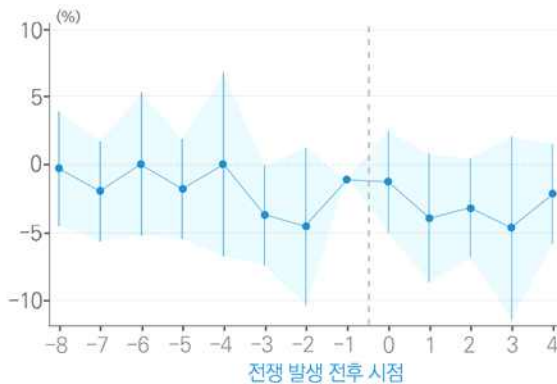


주: 1) 금년 1~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2023~25년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비교하였으며 점선은 중동 전쟁 발발 시점을 의미함.
 2) 모든 결과 값은 설날로 인해 2월 평균 기준 대비 차이.
 자료: 국가데이터처.

[그림 2] 음식 및 음료서비스업 이용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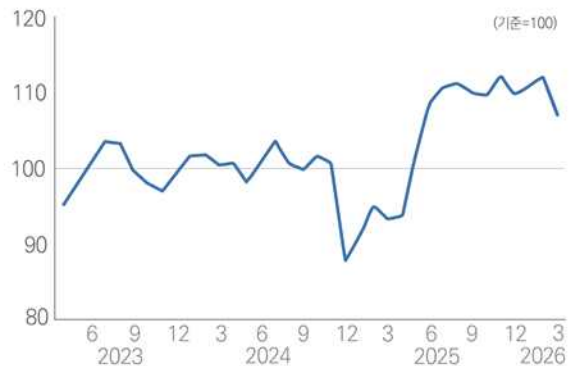


[그림 3] 전체 모바일 이동자 수



주: 1) 금년 1~3월 모바일 이동자 수와 2024~25년 모바일 이동자 수를 비교하였으며 점선은 중동 전쟁 발발 시점을 의미함.
 2) 모든 결과 값은 설날로 인해 2월 평균 기준 대비 차이.
 자료: 국가데이터처.

[그림 4] 소비자심리지수



자료: 한국은행.

한편, 고유가로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소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대해 면밀히 관찰할 필요

-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과도 관련이 있는 전체 총 모바일 이동자 수(유입과 유출의 합)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점차 축소되어 미약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(그림 3).
- 현재까지는 감소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향후 감소세가 지속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

고유가에 따른 가계의 에너지 지출 부담

이영옥 선임연구위원

1. 실제 가계 에너지 부담에 상응하는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

■ 고유가 대응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,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출 구조를 점검할 필요

- 고유가 국면이 지속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, 에너지바우처 등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
 -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% 10~25만원,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 45~50만원, 기초생활수급자 55~60만원 지원
-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출 부담 구조를 분석하여 실제 부담이 큰 가구를 파악하고,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향후 지원 방향을 검토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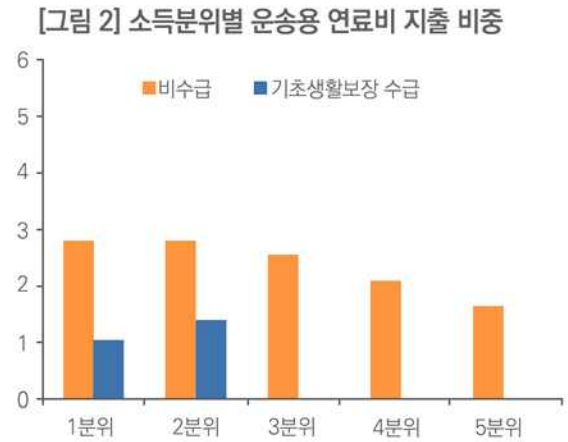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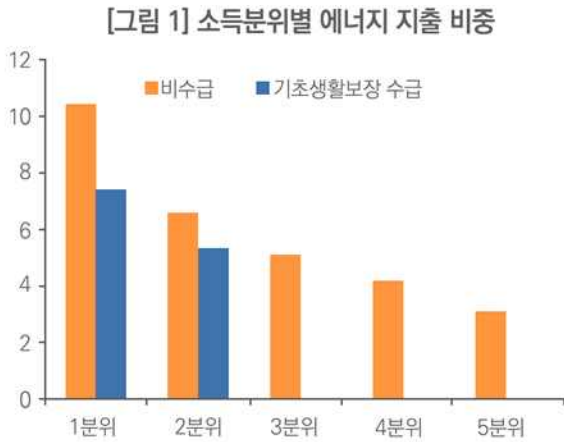
2.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출 부담

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, 저소득가구에서 유가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될 우려

-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(주거광열비 + 운송용 연료비) 비중이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(그림 1)
 - 가계동향조사(2022~25년) 분석 결과, 소득 1분위의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5분위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임.

■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서는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오히려 더 높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만으로는 한계

- 동일 소득분위 내에서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이 수급가구보다 높게 나타남(그림 1).
 -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가구의 순자산분위를 통제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됨.
- 이러한 격차는 주로 운송용 연료비에서 비롯되는데, 1·2분위 비수급가구에서 경제활동참여 비중이 수급가구 대비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(그림 2).



주: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수급액이 양(+)인 가구로 정의하며, 에너지 지출 비중 상위 1%는 제외함.
 자료: 「가계동향조사」, 2022~2025년 분기자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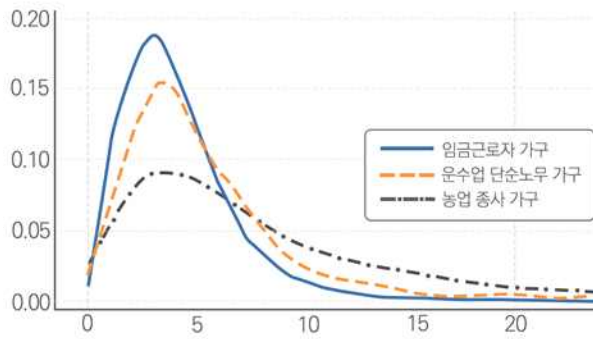
■ 업종·직종별로는 농업·운수창고업 단순노무 종사 가구가 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

- 임금근로자 가구 대비 농업 종사 가구 및 운수업 단순노무 가구(배달·화물기사 등 포함)는 에너지 지출 비중 분포의 우측 꼬리가 두터워 고부담 가구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(그림 3).
- 농업 종사 가구는 소득 1·2분위, 운수업 단순노무 가구는 소득 2~4분위에 주로 분포하여, 저소득층부터 중간소득층에 걸쳐 업종·직종별 에너지 취약성이 나타남.

■ 한편, 고유가 장기화 시 여름철 에너지 부담을 가늠하고자 유가 변동에 따른 7~9월 에너지 지출 반응을 분석한 결과,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(그림 4).

- 두바이유 가격과 에너지 지출 비중의 관계를 여름철(3분기)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, 주거광열비 비중은 1분위에서, 운송용 연료비 비중은 2·3분위에서 5분위 대비 유의하게 높게 증가함.
- 이는 저소득층은 냉방·취사용 에너지, 근로 비중이 높은 2·3분위는 차량연료비에서 각각 유가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구조임을 시사함.

[그림 3] 업종·직종별 에너지 지출 비중 분포



자료: 「가계동향조사」, 2022~2025년 분기자료.

[그림 4] 소득분위별 여름철 유가 반응도



주: 1) 소득5분위 대비 각 분위의 추정계수를 나타냄.
2) ***는 1%, **는 5%, *는 10% 유의수준을 나타냄.

자료: 「가계동향조사」, 2021~2025년 3분기.

3. 정책제언

■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,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

- 아울러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,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, 폭염 특보 연동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